

2 장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사무엘상 17:45-49)

Build me a son, O Lord, who will be brave enough to face himself when he is afraid.

용기: 인생 난관을 정면돌파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기독교 신앙은 능동적이며 전투적

맥아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서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얼마나 지혜롭고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맥아더 장군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은 것 중의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 참 능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전투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격적이고 전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신적인 삶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남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의미에서의 공격과 전투는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랑과 겸손 그리고 욕심 없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이 나약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며 절대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기독교를 오해하여 나약한 것을 숭상하는 종교라고 비판하고 인간을 나약하게 하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리고 요즘도 니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능동적이며 다이내믹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속에서 강한 운동력과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느낄 수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12 참조) 속에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기독교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마귀를 만나도 항복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적하여 적극적으로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7 참조).

강하게 키워라

성경은 인생을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려야 할 천국의 세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과 죄에 오염되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세상의 죄와 싸우는 전투정신과 전투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삶은 전투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에 내보내는 것이 안쓰러워 할 수 있는 대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려고 하지만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이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전쟁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안쓰럽더라도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나약하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온실에서 편안하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물 속에도, 불 속에도 집어넣으십니다. 환난도 겪게 하시고 불경기도 겪게 하십니다. 훈련의 강도도 만만치 않아서 훈련을 받다가 꼭 죽을 것만 같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잊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 12:5)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보면 하나님이 인정 사정 없는 유격조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여 키우십니다. 절대로 오냐오냐 하며 응석받이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주시지만 게을러서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가난해진 자까지 보호해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를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꾸짖으시며 있는 것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시고, 심지어 그를 내어쫓으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29)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강하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용기 있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 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떠날 때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개척정신이 뛰어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친척과 같은 '배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학연과 지연을 동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와 같은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실력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했던 진정한 '파이어니어' (pioneer) 였습니다. 그는 강한 자였고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갈렙은 85 세에도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서 14 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근사한 말씀인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오 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하시면 내게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여호수아 14:6-12).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복도 앓아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힘들고 두려워서 좀처럼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산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용사’ 라고 불리던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성을 그것도 85 세라는 나이에 도전했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정면돌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약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약함과 무능함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핑계하며 성실하고 강한 사람들을 무조건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순종과 겸손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노예처럼 쉽게 부리려고 했던 니체 당시의 크리스천 기독교층은 무니만 크리스천이었지 진실한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엉터리로 잘못 믿는 사람을 보고 기독교를 왜곡되게 받아들여 예수 잘못 믿는 것을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나약하게 한다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큰소리 쳤던 니체는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을 받는 다윗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도 들 수 없고 갑옷도 무거워서 입을 수 없었던 어린 소년 때에 장수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대면하여 그를 무너트렸습니다. 아무리 반복하여 읽어도 여전히 신이 나고 재미있는 말씀 중 하나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니지라 다윗이 이간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사무엘상 17:45-52).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용장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외치며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등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용기 있는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용기를 가르쳐주어야만 합니다. 험한 세상과 싸워야 하는 자녀들이 안쓰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작정 보호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 차라리 골리앗에게 항복을 하고 골리앗의 종과 노예로 살라”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은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지만, 다윗처럼 도망가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돌파하라고 가르쳐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용기의 참된 근거

용기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두려움과 비겁함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갈렙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에스더의 용기는 모두 믿음에서 왔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용기를 줍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갈렙은 나이 많은 노인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여자였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약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다 강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 그들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갈렙이 승리했고, 다윗이 승리했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승리했고, 에스더가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싸운 사람들은 모두 승리했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울 왕과 같이 숨으려 하고 도망하려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결국 비겁한 세상의 종이 되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직면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강한 군사로 키워야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위해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것처럼 키워야 합니다. 강하게, 용기 있게 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싸우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 이렇게 키워라 ...

1. 자녀를 고양이아 아니라 호랑이로 키워라

어차피 삶은 전투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전정터에 내보내는 일이 안쓰러워 감싸주고 보호해주려고 하지만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이다. 그렇게 한다고 삶의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전쟁을 대신 치러줄 수 없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강하게 키워야 한다. 자녀를 고양이아 아니라 호랑이로 키워라.

2. 자녀의 나약함을 온유함으로 위장하지 말라

나약함과 무능함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핑계하여 성실하고 강한 사람들을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모두 용기 있는 강한 사람이었다. 금쪽 같은 자녀, 과잉보호로 키우지 말고 험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의 사람으로 키워라.

3.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용기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두려움과 비겁함의 뿌리는 불신앙이다. 믿음의 선진들의 용기는 모두 믿음에서 나왔다. 믿음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용기를 준다.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에 패할 수밖에 없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가운데 강한 용기의 사람으로 키워라.